

美·日 경제지가 권하는 '여름의 책'

「비즈니스위크」 「東洋經濟」의 '휴가철 추천도서'

이봉호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언제부턴가 여름휴가철은 마음놓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잡지들은 해마다 이때쯤 되면 휴가철에 읽을 만한 책들을 특집으로 소개한다. 휴가철 독서 특집은 그 나라의 독서취향을 거칠게나마 읽게 해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일본. 그들은 휴가철에 어떤 책들을 읽고 있다. 지령 5천호가 넘는 일본의 경제주간지 「東洋經濟」가 특집으로 마련한 '휴가철 읽을 만한 책'을 요약 소개한다.

지금으로부터 10년-포스트냉전의 세계질서와 일본의 행방(藤井昇 지음)

세계질서의 새로운 모습을 예견한 책. 저자는 '냉전의 종식'으로부터 21세기에 이르는 10년간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미·소 데탕트 진전과 공산주의의 종언 △민족주의의 분출로 국가주의 붕괴 △미국의 부활 △중·소, 제3세계의 근대화와 산업화 △남북문제와 지구전체 차원의 환경문제의 세계최대의 과제로서의 부상 등이다. 저자는 이같은 예측을 실증데이터로 제시하고 있다. (PHP 刊)

新·日本の 외교(入江昭 지음)

탈냉전의 시대를 맞아 일본인과 일본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제시한 책. 앞으로의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불가피한 시대가 될 것이며 일본사회의 행동도 이같은 추세에 맞춰나가야 하며 인류를 위해 적극적인 국제 협조에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中公新書 刊)

해는 또다시 진다(빌에모트 지음)

영국 「이코노미스트」誌, 東京지국장을 지낸 바 있는 저자가 일본경제의 앞날을 예언한 책. 저자는 무역흑자 자본수출 엔화가치상승 등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력 자체가 일본을 근저로부터 변화시켜 경제력의 쇠퇴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草恩社 刊)

일본경제의 해는 아직 높다(鈴木淑夫 지음)
에모트의 주장을 반박한 책. 높은 기술력, 양

성한 저축의욕, 유연한 조직 등 일본경제의 기초적 힘이 여전히 튼튼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동요를 일몰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90년대에 들어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인정, 저자는 일본의 스톡 경제화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정책의 예방적 운영, 자산격차 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日本主義경제에 대한 경고(眞野輝彦 지음)

東京은행 경제학자로 현장감이 뛰어난 저자가 일본주의라는 좁은 시각에서 경제정책을 운영하지 말고 국제적 시점에서 세계경제를 조망해가면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다소 비일방적인 특색을 띠고 있다. (時事通信社 刊)

자본주의를 초월한 日本(木神原英資 지음)

일본형 시장경제체제 성립과 전개과정을 서술한 책. 저자는 일본형 탈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을 공적인 섹터(공익사업과 금융업무)와 민간대기업부문이 기본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부단한 교섭을 통해 상호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시장과 국가의 선택을 상호연관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경쟁적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토지개혁의 시점(長谷川徳之輔 지음)

전적 일본 건설관료였던 저자가 경험을 살려 일본토지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책. 저자는 시장기구에서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우선 투기화된 토지소유자체의 억제를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그 근거로 토지는 일반적인 재화가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재 가격결정에는 공적 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東洋經濟新報社 刊)

지구온난화의 시대(S.H.슈타이너 지음)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과학적 해설과는 달리 정치 사회 매스컴과의 연관성도 언급하고 있는 책. (다이아몬드社 刊)

지구온난화를 알려주는 책(北野康 田中正之 편저)

일본 환경문제 제1선에서 활약중인 전문가가 각각의 영역에서 과학수준과 대응책을 해

설한 책. 기술적인 대책문제도 쉬운 용어로 설명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맥밀런리서치연구소 刊)

어리광의 구조(土居健郎 지음)

일본인의 행동양식을 어리광이라는 일본어 특유의 개념으로 분석해낸 책. (弘文堂 刊)

日本문화론의 변용(青本保 지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문화론을 4단계의 시대적 구분을 통해 개괄·정리한 책. 제1기는 45~54년으로 일본문화의 부정적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시기, 제2기(55~63년)는 잡종문화론과 생태환경으로부터 문명에 대한 인식을 하는 입장이 교차했던 시기이며 비교문화·문명의 역사적 상대성을 인식한 시기. 제3기는 전·후기로 나누어 전기(64~76년) 후기(77년~83년) 모두 일본문화의 긍정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中央公論社 刊)

縱社會의 인간관계(中根川根 지음)

일본인의 집단·조직원리로서 縱性, 그 요인으로서 場의 강조, 집단에 의한 전면참가, 縱的 조직에 의한 인간관계를 조명한 책. (講談社 刊)

문명으로서의 이에(家)社會(村上泰亮·公文俊平·佐藤誠三郎 공저)

개인주의 對 집단주의라는 개념설정 자체가 서구형 근대화의 요인이라는 사고방식으로부터 間柄(사이, 관계라는 뜻의 일본어)주의라는 표현을 도입, 일본의 근대화, 산업화의 달성을 설명한 책. 저자들은 '이에형 조직원칙'이라는 유연한 적응력이 특히 기업등 중간 집단차원에서 효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다. (中央公論社 刊)

연초부터 이라크와 다국적군의 전쟁으로 뒤숭숭하게 시작됐던 1991년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갔다. 곧 휴가철이 시작된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인들과 미국의 기업경영자들에게는 올 여름휴가는 새로운 활기를 찾기 위한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誌는 최신호에서 여름 휴가철에 읽을 만한 책 13권을 선정 소개했다. 주로 경영,

정치, 국제관계에 관련된 여름휴가 추천도서를 요약 소개한다.

Barbarians at the Gate : The Fall of RJR Nabisco(브라이언 버러프 & 존 헤리어 지음)

1988~89년 동안 280억불 규모의 기업경영권 인수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모든 주요 투자은행과 법률회사를 긴장시켰던 Nabisco RJR의 흥망에 관한 이야기. 저자들은 이같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RJR의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파헤치고 있다. 이와함께 저자들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미국 월스트리트의 내부 구조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Harper Perennial 刊)

Father, Son & Co. : My Life at IBM and Beyond(토마스 J. 왓슨 & 피터 피트레 지음)

1956년부터 71년까지 최고 경영자로 일하면서 IBM을 매출액 7억3천5백만달러의 평범한 기계제조회사에서 매출액 75억달러의 세계적인 컴퓨터 거인으로 만든 토마스 왓슨회장의 삶을 그의 아들인 저자가 일상적이고 사소한 메모 등을 통해 그려낸 책. 저자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능력 있는 이사들을 쫓아내고 에스맨들로 둘러싸여 컴퓨터시대의 의미를 깨닫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회사경영을 둘러싸고 부자간에 벌어지는 세대갈등을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어 흥미롭다. (Bantam 刊)

The House of Morgan : An American Banking Dynasty and the Rise of Modern Finance(론 체르나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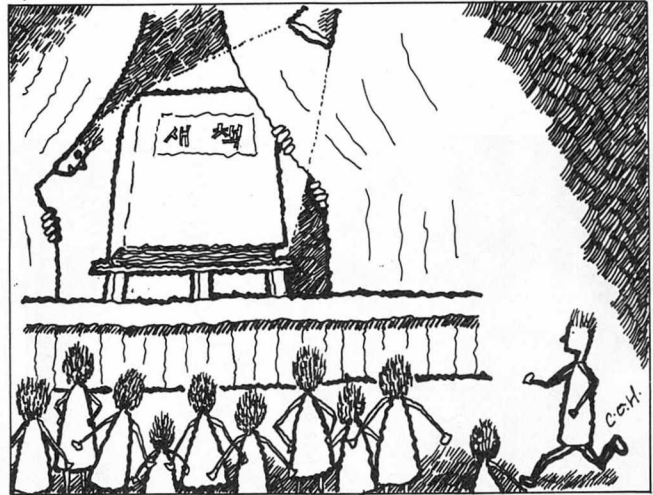
아메리칸 북 어워드 수상작. 60년대 미국의 월 스트리트의 상황에 관한 역사적 고찰서. 저자는 미국 최대의 금융가인 J.P. 모건가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그 당시 시대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동시에 어떻게 해서 모건가가 어메리칸드림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Touchstone 刊)

Gene Dreams : Wall Street, Academia, and the Rise of Biotechnology(로버트 타이틀먼 지음)

인스티투셔널 인베스터誌 편집장인 저자가 월 스트리트에서 부침하는 투자자들의 드라마와 꿈, 욕망과 실패를 유전학적 체계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그려냈다. (Basic Books 刊)



책광고를 만드는 즐거움



1987년부터 다섯해 동안, 편집·교열·교정·포지디자인·본문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전산조판에 제작대행까지 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바른글방 식구들이지만, 그래도 해볼 기회가 드물었던 일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출판광고디자인이 바로 그 하나입니다.

흔히들 엄청나게 비싼 광고 게재료는 그러려니 하면서도 정작 독자와 서점의 눈에 보여지는 광고 디자인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고가 제 구실을 하려면, 분명 전문가에 의해 다듬어진 개성과 품위가 요청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게재료임에도 너덧배의 효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광고의 생리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책 읽는 즐거움과 책을 만드는 즐거움이 함께 있는 집단, 바른글방에는 책 광고의 의미와 효과를 생각하면서 제값 이상을 해내는 광고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판·전·문·집·단



편집기획부 전산사식부
 종로3가 낙원상가 옆 신한빌딩 4층 전화 766-6426(대), 766-6427
 종로3가 피카디리 극장 옆 초동빌딩 2층 전화 764-4241(대), 764-4240
 766-1947 팩시 744-9209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사람들은 책에 관한 모든 일들을 거뜬히, 믿음직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편집 및 교정은 물론, 책의 기획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표지·본문·출판광고 디자인과 전산·수동 입·출력, 그리고 제작전반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로 대행해 드립니다.

바른글방 에서는 이를 위해, 미려한 서체의 최신기종인 전산사식 편집·입력기 15대와 레이저 교정기 출력기·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를 자체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퍼스컴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위한 수동사식기와 중국어 간체자 자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Random Walk Down Wall Street : Update for the 1990s Investor (버튼 G. 말킬 지음)

초보자를 위한 금융시장과 개인 재산 관리 지침서.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 분명하고 재미있게 독자들에게 소개한 책. 미국 프린스턴대학 경제학교수인 저자는 독자들에게 월 스트리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생생한 실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하듯 써내려가고 있다. (Norton 판)

Inside Job : The Looting of America's Savings and Loans (스티븐 피쥬, 메리 프리커, 폴 우올로 지음)

미국 금융기관인 S & L (저축·대여공사)의 파산을 다각적으로 파헤친 책. 저자들은 S & L이 파산지경으로 빠진 것은 살인, 방화, 뇌물 증여, 섹스가 뒤엉켜있는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그러한 드라마의 주역들은 정치가, 청부살인자, 주택건설업자, 낭비주의자 그리고 매춘부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S & L의 몰락을 파헤치면서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어떻게 부정부패를 가능케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Harper Perennial 판)

The Death of The Organization Man (아만다 베네트 지음)

70~80년대 일시해고조치 등에 의해 지위가 크게 흔들렸던 미국기업의 중간 관리자의 운명을 통해 본 미국 기업의 간략한 역사. 저자는 기업에 가장 충실한 중간 관리층들은 스스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그 직업에 몰두하나 결코 어떤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비용으로밖에 간주되고 있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다. (TouchStone 판)

Trump : The Art of Survival (도날드 트럼프, 찰스 리슨 지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 재벌 도날드 트럼프의 최신작. 곤경을 헤쳐나가는 도날드 트럼프의 독특한 생존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Warner 판)

What I Saw at the Revolution : A Political Life in the Reagan Era (페기 누난 지음)

레이건대통령 당시 백악관에서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로 일한 저자의 회고록. 권력맹신자

와 레이건대통령을 둘러싼 아부꾼을 흥미롭게 묘사해내고 있다. 저자는 2년간 존경하던 레이건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나타내고 있다. (Ivy 판)

Gorbachev : Heretic in the Kremlin (루스코 도더, 루이스 브랜슨 지음)

저자들은 고르바초프가 레닌보다는 지미 카터와 더 많은 유사점을 가진 크레믈린의 이단자라고 보고 있다. 저자들은 소련에서 어떻게 이같은 고르바초프가 성장하고 권력을 잡게 되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소련 정세 때문에 다소 시의에 맞지 않은 것 같으나 고르바초프의 뿌리와 그의 통치, 그리고 그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의 본질을 분석해내고 있어 유용하다. (Penguin 판)

My Traitor's Heart : A South African Exile Returns to Face His Country, His Tribe, and His Conscience (라이언 앨런 지음)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를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자가 보고 느낀 남아공화국 인종차별 실태 및 그로 인한 사회 문제를 파헤친 책. 저자는 증오와 공포에 얽매어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단면을 고통스럽게 묘사해내고 있다. (Vintage 판)

Against Gravity : From Paris To Dakar In The World's Most Dangerous Race (에드 맥케이브 지음)

마흔일곱 살에 파리에서 대카까지의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 직업을 중단한 전설적인 광고맨인 저자가 자동차레이스 중 여자친구와 함께 겪은 역경과 끝까지 달리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노력을 그려낸 책. 황량한 사하라 사막을 질주하면서 느끼는 스틸과 위험을 생생하게 묘사해내고 있다. (Warner 판)

A Year in Provence (피터 에릴 지음)

영국 런던 출신 광고맨인 저자가 아내와 함께 밝은 태양이 비치는 프로방스 지방에서의 1년간의 생활을 기록한 책. 그저 낭만적일 것으로만 생각됐던 그곳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Vintage 판)